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후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조근자¹, 김수일²

¹공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²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2018년 9월 3일 접수, 2018년 9월 21일 수정접수, 2018년 10월 5일 게재승인)

간추림 : 본 연구는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전과 후에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를 파악하여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고취하도록 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보건 의료계열 1학년 학생 472명이었으며, 죽음에 대한 인식은 3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도구를 사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4월 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독립 t 검정, ANOVA, 짝비교 t 검정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참관 해부실습 전에는 직계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p=.016$), 사망자를 직접 본 경우($p=.021$)에 죽음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참관 해부실습 후에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p=.036$), 직계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p=.010$), 사망자를 직접 본 경우($p=.011$)에 죽음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참관 해부실습 전(3.06점)보다 후(3.19점)에 유의하게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p=.000$). 특히 죽음에 대한 불안은 참관 해부실습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0$), 죽음에 관한 관심 역시 참관 해부실습 후 유의하게 높아졌다($p=.000$). 따라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동반된다면,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은 해부학적 지식을 향상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경험이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찾아보기 낱말 : 해부용시신, 참관 해부실습, 죽음, 인식

서 론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직업의 특성 상 인체의 구조에 대해 배우는 해부학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전문적인 보건의료 행위를 해야 하는 학과 의 경우에는 해부학을 이론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해부용시신(cadaver)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이 허용되는 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Kim [1]의 연구에서도 81.6%의 간호대 학생들과 95.5%의 간호대학 교수들이 시

신 해부실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을 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신을 통해 인간의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인간이 나타내는 죽음의 의미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경험에 의해 달라지며, 죽음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와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고통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 죽음에 대한 인식이란 죽음과의 관계에서 바라본 삶에 대한 태도로서 형성된 인지적 요인이다[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Noh의 연구[4]에서 대학생들이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이상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93.3%가 현장실습 중에 환자의 죽음을 대면한 것으로 나타났다[5].

*이 논문은 2017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교신저자 : 김수일(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전자우편 : sikim@cnu.ac.kr

이처럼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교육과정상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해부실습, 현장실습, 더 나아가서는 전문직을 수행하는 중에 환자의 죽음과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당한 정도의 경험이며 이 때 이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이들의 삶의 질, 삶의 태도, 나아가 전문직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평소 죽음에 대한 인식과 교육과정상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를 파악하여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고취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직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대전시에 소재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을 하러 온 보건의료 관련 학과 1학년(간호학과(대전대, 중부대, 공주대, 충남대, 배재대) 339명, 공주대 응급구조학과 60명, 혜천대 물리치료학과 73명) 학생들에게 참관 해부실습 전에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472명이 설문문에 참여하였다.

대상자들은 학과별로 2시간에 걸쳐 15구의 해부용시신을 이용하여 참관 해부실습을 하였고, 본인 의지에 따라 해부용시신의 구조물들을 만져볼 수 있었다.

2. 연구도구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6문항, 죽음에 대한 인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Inumiya [3]가 개발하고, Cha [6]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 10문항,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 10문항, 죽음에 대한 불안 5문항, 죽음에 대한 관심도 5문항, 생명존중의지 6문항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죽음에 대한 불안은 역산 처리하였다. 즉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높아지고, 부정적 인식은 낮아지며, 죽음에 대한 불안은 낮아지고, 관심은 높아지며, 생명존중의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이는 죽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ha (200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이었으며, Chong (20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99$ 였다.

3.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2017년 4월 5일부터 2017년 6월 18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임의로 고유번호를 배정하고 실습 참여 전과 후의 설문지에 고유번호를 쓰도록 하여 전후 설문지의 짝을 만들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PC 24.0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짝표본 t-검정, 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5. 연구윤리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KNU_IRB_2017-17), 대상자들에게 참여 전에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또한 실습 참여 전과 후에 조사를 하므로 언제라도 참여 의사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음을 설명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은 여자 82.0% (387명), 남자 18.0% (85명)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59.0% (278명)로 있는 경우(41.0%)보다 많았고, 이들 중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와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50.3%로 나타났다. 본인의 건강상태는 53.3%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직계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는 23.8% (112명)로 나타났다. 직계가족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는 46.0% (217명)였으며, 사망자를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28.4% (134명)로 나타났다(Table 1).

2.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인식 차이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전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직계가족 중 환자 유무($p = .016$), 사망자를 본 경험 유무($p = .021$)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계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이 3.12점으로 없는 경우 3.0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망자를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이 3.11점으로 없는 경우 3.0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472)

Characteristics	Division	N	%
Sex	Male	85	18.0
	Female	387	82.0
Religion	Yes	193	41.0
	No	278	59.0
Activity to religion	Very passive	19	9.8
	Passive	77	39.9
	Active	77	39.9
	Very active	20	10.4
Health status	Poor	25	5.3
	Moderate	195	41.4
	Good	251	53.3
Existence of patient among immediate family	Yes	112	23.8
	No	359	76.2
Existence of the dead among immediate family	Yes	217	46.0
	No	255	54.0
Whether subject have seen the dead	Yes	134	28.4
	No	338	71.6

3.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인식 차이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후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건강상태 정도($p = .036$), 직계가족 중 환자 유무($p = .016$), 사망자를 본 경험 유무($p = .021$)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3.12점) 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3.23점)가 죽음에 대한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계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이 3.26점으로 없는 경우 3.17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참관 해부실습 전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망자를 본 경험 유무에 있어서도 경험이 있는 경우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이 3.25점으로 없는 경우 3.17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 또한 참관 해부실습 전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4.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전 · 후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

죽음에 대한 인식 중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전에는 5가지 하위 영역 중 부정적 인식은 낮고, 생명존중 의지가 3.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죽음에 대한 관

Table 2. Recognition to dea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before participation in cadaver dissection

Characteristics	Division	Score of recognition to death		t/F	p
		Mean	SD		
Sex	Male	3.05	0.35	- .335	.738
	Female	3.06	0.33		
Religion	Yes	3.09	0.33	1.822	.069
	No	3.03	0.32		
Activity to religion	Very passive	3.03	0.36	1.601	.197
	Passive	3.04	0.27		
	Active	3.13	0.33		
	Very active	3.20	0.45		
Health status	Poor	3.04	0.31	0.692	.501
	Moderate	3.04	0.31		
	Good	3.08	0.35		
Existence of patient among immediate family	Yes	3.12	0.32	2.412	.016
	No	3.04	0.33		
Existence of the dead among immediate family	Yes	3.07	0.32	0.748	.455
	No	3.05	0.34		
Whether subject have seen the dead	Yes	3.11	0.33	2.321	.021
	No	3.04	0.32		

Table 3. Recognition to dea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fter participation in cadaver dissection

Characteristics	Division	Score of recognition to death		t/F	p
		Mean	SD		
Sex	Male	3.16	0.32	-0.909	.364
	Female	3.20	0.31		
Religion	Yes	3.21	0.33	0.819	.413
	No	3.18	0.30		
Activity to religion	Very passive	3.25	0.33	1.244	.295
	Passive	3.16	0.29		
	Active	3.24	0.32		
	Very active	3.26	0.42		
Health status	Poor	3.12	0.33	3.358	.036
	Moderate	3.16	0.30		
	Good	3.23	0.32		
Existence of patient among immediate family	Yes	3.26	0.30	2.574	.010
	No	3.17	0.32		
Existence of the dead among immediate family	Yes	3.19	0.32	-0.296	.767
	No	3.20	0.31		
Whether subject have seen the dead	Yes	3.25	0.33	2.556	.011
	No	3.17	0.30		

Table 4. Changes of recognition to death before and after participation in cadaver dissection

Category	Timing	Mean	SD	t	p
Positive perception	Before	3.32	0.53	-1.334	.183
	After	3.34	0.51		
Negative perception	Before	3.34	0.52	-0.189	.850
	After	3.34	0.51		
Anxiety on death	Before	2.96	0.83	8.912	.000***
	After	2.72	0.83		
Interest in death	Before	2.93	0.82	-11.451	.000***
	After	3.19	0.84		
Life respect will	Before	3.34	0.66	-0.981	.327
	After	3.36	0.66		
Total	Before	3.06	0.33	-13.651	.000***
	After	3.19	0.31		

십이 2.9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참관 해부실습 후에는 생명존중 의지가 3.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2.7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죽음에 대한 불안은 실습 참여 후 2.96점에서 2.72점으로 낮아졌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즉 유의하게 불안이 증가된 것이다.

또한 죽음에 대한 관심은 실습 참여 후 2.93점에서 3.19점으로 높아졌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결국 총체적으로는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전보다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p=.000$) (Table 4).

고 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보건의료계열 학생들로서 직계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는 23.8%였고, 직계가족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는 46.0%로 나타났으나, 71.6%의 학생들이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전 사망자를 직접 본 경험은 없었다.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육과정상 참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직접 사망자를 본 경험이 없는 상당수의 학생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인식은 ‘직계가족 중 환자 유무($p=.016$)’, ‘사망자를 본 경험 유무($p=.021$)’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즉, 직계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3.12 ± 0.32)와 사망자를 본 경험이 있는 경우(3.11 ± 0.32) 죽음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대상자들이 가족 중 환자가 있거나 사망자를 직접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죽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선행연구[7,8]와는 달리 죽음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Lee와 Yang [9]은 종교의 공통적 본질 중 하나가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므로 종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킨다고 하였으나,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죽음의식을 연구한 Lee와 Koh [5]의 연구에서는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41.0%였으나 이들 중 종교 활동 참여에 적극적인 대상자들은 절반 정도인 50.3%로 나타났다(Table 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종교 활동 참여가 적극적일수록 죽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았다(Table 2). 선행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종교 활동의 적극성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으므로,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 종교는 개인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종교에 대한 적극성 정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계가족 중 사망자 유무’에 따라서는 죽음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Kim과 Kim [1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직계가족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보다는 사망자를 직접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죽음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후에는 ‘본인의 건강상태 정도’에 따라 유의하게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차이가 있었으며($p=.036$), 참관 전보다 인식 수준이 높아졌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Table 3). 이는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전에는 영향이 없던 변수인데, 참관 해부실습 전 학생들에게 실습에 제공되는 해부용시신이 의학발전과 인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고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기증된 시신이라는 설명을 하였고 실습을 하면서 고인의 시신 기증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사후에도 숭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한 대상자가 이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후에도 직계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3.26 ± 0.30)와 사망자를 본 경험이 있는 경우(3.25 ± 0.33)에 죽음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특히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전보다 후에 죽음에 대한 인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졌다(Table 3). 이는 이 두 변수가 대상자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이 전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전(3.06 ± 0.33)과 후(3.19 ± 0.31)의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p=.000$).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Chong과 Lee [7]의 연구 결과(3.15점)와 비교해 볼 때 참관실습 전에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 점수가 더 낮았고 참관실습 후에는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는 1학년들이었으나 Chong과 Lee [7]의 연구대상자는 3, 4학년들로서 이들은 여러 차례의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들의 죽음을 많이 경험하고 이를 통해 죽음을 객관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죽음에 대한 인식 중 세부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생명존중 의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실습 전후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부정적 인식은 역문항 처리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인식이 낮다는 것이다.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전(3.34점)과 후(3.36점) 모두 ‘생명존중 의지’는 5가지 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Yoo [8]의 결과와 동일하나, 점수는 3.62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다. 그러나 Chong과 Lee [7]의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3.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2.96점에서 2.72점으로 유의하게 낮아져($p=.000$) 참관 후 불안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한 관심은 2.93점에서 3.19점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p=.000$). 참관 후 죽음에 대한 불안은 Chong과 Lee [7]와 Yoo [8]의 결과보다 높아졌고, 죽음에 대한 관심 역시 Chong과 Lee [7]와 Yoo [8]의 결과보다 높아졌다.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시신기증의 의미와 고인의 숭고한 뜻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관 해부실습을 하면서 해부용시신의 장

거나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해체되는 등의 상황을 경험하며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 시 시신 기증에 대한 숭고한 의미를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환자에게 전문적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게 될 예비 전문직업인으로서 죽음에 대한 이해와 인식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Son 등[11]의 연구에 의하면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해부실습 참여 후 교육 만족도가 5점 척도 중 4.5점이었고 재참여 의사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학생도 93.3%로 보고되었다. 또한 94.6%의 학생들이 해부실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실습 후 해부학적 지식이 상승되었다고 하였다[12].

따라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동원된다면, 해부용시신을 이용한 참관 해부실습은 해부학적 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경험이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Kim DI.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on necessity of cadaveric dissection for nursing students - In scope of nursing students and professors -. Korean J Phys Anthropol. 2015; 28:119-25.
2. Li ZS, Choe WS. The death orientation of nursing students in Korea and China. Korean J Hosp Care. 2008; 8:1-12.
3. Inumiya Y. A study on development of a view of life and death scale and relationships among its elem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2002.
4. Noh SH.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orientation and attitudes on death, and cognition degree of hosp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Busan; 2004.
5. Lee JE, Koh BY. The death orientation of paramedic student. Korean J Emerg Med Ser. 2011; 15:45-55.
6. Cha YR. A study on the nurses' attitude to death in Korea: Centering on university hospital in Jeollabuckdo Provi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05.
7. Chong YR, Lee YH. Affecting factors of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7; 23:389-97.
8. Yoo MR. Perception of death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buk University; 2014.
9. Lee OJ, Yang NY. A study on the death-related attitude in undergraduate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7; 16:389-97.
10. Kim SH, Kim DH. Nursing students' attitude to death, death-related education experience and educational needs.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1; 17:405-13.
11. Son IA, Son MJ, Jeong GB. The effect of education in anatomy using cadavers to the paramedic students. J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3; 13:341-7.
12. Kim WS. The effect of observation program of cadaver dissection for the paramedical students. Korean J Phys Anthropol. 2012; 25:77-86.

Changes of Recognition to Death Before and After Observation on the Cadaver Dissection to Paramedical Students

Keun-Ja Cho¹, Sooil Kim²

¹*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hanges of recognition to death before and after observation on the cadaver dissection to paramedical students. This study was done on 472 freshmen using questionnaire survey. Recognition to death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36 items. Data were collected before and after observation on the cadaver dissection with agreement of subjec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4.0. This study showed that recognition to death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observation on the cadaver dissection (3.19 points) than before observation on the cadaver dissection (3.06 points) ($p = .000$). Especially, anxiety on death was significantly increased ($p = .000$), and interest in death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oo ($p = .000$).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we need positively to encourage observation on the cadaver dissection for paramedical students with providing program to decrease anxiety on death because of not only improving anatomy knowledge but also increasing recognition to death.

Keywords : Cadaver, Observation of dissection, Death, Recognition

